

전자산업의 현실과 대응방향



정몽헌 / 본회 비상근 부회장
현대전자산업(주) 사장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처해있는 국내외의 제반 여건은 위기라 할 정도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안으로는 기술력과 전문인력의 부족, 과도한 임금상승과 자금난 등 생산요소의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밖으로도 세계경제의 B LOCK화와 집단보호주의, 후발국가들의 추격과 선진국의 특허공세, 그리고 급속한 국내시장의 개방 등 우리 전자산업의 입지는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바이지만, 여러 가지 부존여건상 우리 경제를 선도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을 헤쳐 나가야 할 전략산업으로서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크게 산업내부와 관련부문 그리고 외부여건의 문제로 대별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전자산업은 우리나라의 여타 수출주도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인 단순조립기술에 크게 의존한 양적 성장에 치중

한 결과, 이제 더 이상 저임금 단순노동과 규모의 경제가 전자제품의 주요 부가가치 취득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체경쟁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한 임금상승은 단순조립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상실케 하였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제품다양화와 고급화는 저가 양산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한편, 우리의 빈약한 원천기술과 부품산업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고급제품의 개발과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후발국의 저임금과 선진국의 고기술 사이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처지를 타개하고 국내의 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성력화·자동화를 촉진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제조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단기적인 수익을 희생해서라도 경쟁력우위의 조기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여 주요부품과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제고함으로써, 생산성과 기술력 위주의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경쟁력배양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획기적인 전환

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기까지 전자산업 관련부문 상호간의 공동노력이 미흡하였던 것 같다. 우리 산업이 대외적인 개방과 통상마찰속에서, 또한 저임금으로부터 고기술로의 비교우위기반의 시급한 전환이 요구되는 변혁기를 맞아서, 정부의 각 유관부처와 학계, 연구소 그리고 업체 상호간의 대내외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적 선도와 지원의 부족과 비통합성,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산학연계의 미흡 등에 보듯이 국가적 자원의 낭비가 컸다고 생각한다. 전자산업의 기술기반을 조기에 확충하고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투자, 연구개발이 모든 분야에서 산, 관, 학 등 관련부문의 긴밀한 상호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역량의 결집을 극대화하여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경제여건이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불건전하고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送年특집 / 1991年度 電子産業을 總點檢한다

정책적 우선순위의 혼란은 성실한 근로정신의 쇠퇴와 제조업 노동력부족의 심화, 자금공급의 왜곡과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로 이어져 기업의 직간접비용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전자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대처하기에 따라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기혁신의 호기로도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총체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장기적인 전략하에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업계의 획기적인 체질개선과 기술력위주의 경쟁력 선진화, 관련부문의 효과적인 상호협력 그리고 기업정신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사회적 풍토의 정립을 통해 전자산업이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